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브로드컴 주도, 나스닥 사상 최고치 경신

- 나스닥 상승 1.2%로 사상 최고치 경신
- 반도체 관련주, 브로드컴(+11%) 상승 주도
- FOMC 앞두고 기대·경계감 교차, 시장 변동성 있음

Summary

미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함. 나스닥 지수는 1.2% 상승하며 20,173.89에 거래를 마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 S&P 500 지수는 0.38% 상승한 6,074.08을 기록했으나, 다우지수는 0.25% 하락하여 43,717.48로 마감함.

기술주 중심의 시장 흐름 속에서, 브로드컴의 주가는 인공지능(AI) 기대 속에서 11.2% 상승하며 큰 영향을 미쳤음. 이는 통신 및 네트워크 장비 관련 기업의 실적 개선과 맞물리며 반도체 관련주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 반면, 엔비디아는 1.68% 하락했으며, 이는 지난 사상 최고치 대비 10% 이상의 조정을 의미함. 브로드컴의 상승은 주요 클라우드 기업들과의 AI 칩 개발 소식에 따른 것이며, 반도체 분야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임.

FOMC 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준의 금리 결정과 경제 전망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주요 관전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에서 제조업 경기 둔화와 서비스업의 회복세가 엇갈리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이번 FOMC 회의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나, 인플레이션 상승 조짐으로 인해 이에 대한 경계감이 존재함. 이러한 경제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은 다가올 통화정책 결정에 주목하고 있음. (다우 -0.25%, 나스닥 +1.24%, S&P500 +0.38% 러셀2000 +0.58%)

특징종목

브로드컴(+11%)이 2025년 최고의 칩 주식으로 선정되며 주가가 크게 상승함.

애널리스트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며, 향후 기술 혁신 기대감이 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테슬라(+6.1%)는 11월에만 38% 주가 상승하며, 전기차 시장 내 지속적인 성장 기대가 투자자 관심을 끌어냄. 특히 전기차 판매 확대와 기술 개발 전략이 호재로 작용함. 하니웰(+3.7%)은 항공우주 부문 분사 고려 소식에 주가 상승, 엘리엇 경영참여요구 상승 압력도 있음. 알파벳(+3.6%)은 삼성과의 혼합현실 분야 협력 및 긍정적인 애널리스트 평가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아마존(+2.4%)은 웹 서비스 부문에서 AI 모델 및 Trainium 칩 발표 소식, Genpact와의 협약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함. 애플(+1.2%)은 AI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iPhone, App Store의 긍정 전망으로 상승세를 기록함.

반면, 슈퍼마이크로(-8.3%)는 나스닥 100 지수 제외 예정 소식에 주가가 급락하며 투자자 우려를 촉발함. 엔비디아(-1.7%)는 과대평가 우려로 이익 실현 매도세가 나타남. 팔란티어(-0.4%)는 나스닥 100 편입에도 매도 압력으로 소폭 하락함.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20분, KST 기준

미국의 연준 금리 결정에 앞서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4.40으로 상승하며 한 달 내 최고치를 기록했음. 이는 연준의 예상보다 적은 금리 인하 전망에 따라 경제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을 반영한 것임.

달러인덱스(DXY)는 106.90으로 소폭 하락했음. 이는 주요 통화 대비 달러 약세를 나타내며, 특히 유로와 엔에 대한 강세가 두드러졌음.

WTI 원유 가격은 하루 동안 0.2% 상승한 71.08 달러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 안정된 흐름을 유지하고 있음. 금 가격은 온스당 2651.58 달러로 소폭 상승했으며, 실버 역시 소폭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 농산물 시장에서는 옥수수과 콩의 하락이 눈에 띈 반면, 오렌지 주스는 3.95% 급등했음. 산업 금속은 대체로 약세였으며, 특히 알루미늄 가격의 하락이 두드러졌음. 이러한 시장 동향은 연준의 금리 정책과 경제 지표, 그리고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Market Snapshot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S&P500 (SPY)	+0.4	배당성장 (SCHD)	-0.9
S&P500 동일가중 (RSP)	-0.3	미 국채 (AGG)	+0.1
나스닥100 (QQQ)	+1.4	미 장기 국채3X (TMF)	+0.3
다우 (DIA)	-0.2	매그니파센트 7 (MAGS)	+2.3
대형성장 (MGK)	+1.1	인공지능 (AIQ)	+1.1
소형주 (IWM)	+0.6	메타버스 (METV)	+1.0
인도 (INDA)	-0.0	클라우드 (CLOU)	+1.5
중국 (FXI)	-1.6	2차 전지 (LIT)	+0.5
반도체 (SOXX)	+1.9	로봇 (BOTZ)	+0.3
부동산/리츠 (VNQ)	-0.4	방위산업 (SHLD)	+0.9
헬스케어 (XLV)	-1.2	스마트 그리드 (GRID)	+0.3
항공 (JETS)	-0.5	미국 인프라 (PAVE)	-0.2
소프트웨어 (IGV)	+1.1	친환경 (ICLN)	-1.4
바이오테크 (XBI)	+1.5	우라늄 (URA)	+0.4

US Sector Index

S&P 500	종가	D-1(%)	D-5(%)	D-20(%)
경기소비재	1,954.2	+1.7	+3.5	+13.5
커뮤니케이션	356.6	+1.3	+5.1	+9.7
IT	4,751.1	+1.0	+1.3	+6.1
산업재	1,159.7	+0.1	-1.3	-1.3
금융	820.4	-0.0	-0.6	-1.0
필수소비재	884.8	-0.4	-0.5	+2.8
부동산	265.9	-0.6	-3.1	-1.2
유틸리티	388.6	-0.8	-2.2	-3.2
소재	554.3	-1.0	-3.7	-3.4
헬스케어	1,618.7	-1.2	-3.8	-2.0
에너지	661.9	-2.2	-4.0	-8.3

글로벌 FICC 동향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및 지수	종가	D-1(%)	D-5(%)
WTI	70.7	-1.0	+3.2	달러인덱스	106.88	-0.1	+0.7
Brent	73.9	-1.0	+2.3	유로/달러	1.0510	+0.1	-0.4
미국 천연가스	3.2	-1.7	+1.4	달러/엔	154.19	+0.4	+2.0
석탄	107.6	-1.5	-3.4	달러/역외위안	7.2929	+0.2	+0.4
금	2,670.0	-0.2	-0.6	달러/원(NDF)	1,436.4	+0.2	+0.6
은	30.7	-1.6	-0.9	비트코인	105,972	+3.0	+4.3
구리	9,065.0	+0.1	-1.8	이더리움	4,037	+4.7	+5.4
알루미늄	3,070.0	-0.8	-1.8	나스닥 크립토	5,559	+3.8	+8.6
밀	550.0	-0.5	-1.7	CRB 상품 (12/13)	352.7	+0.2	+1.7
대두	986.0	-0.8	-0.9	LME 금속 (12/13)	4,024	-0.3	-1.0
소고기	190.0	-1.1	+1.6	발틱 건화물 운임	1,051	+1.9	-7.4
돼지고기	83.6	-2.4	-3.4	컨테이너 운임(주간)	3,529	+85	-640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주요 스프레드	종가(%)	D-1(bp)	D-5(bp)
미국	4.40	+0.4	+20.0	미 국채 10-2년	14.5	-0.2	+7.1
한국	2.71	+3.7	+4.0	미-한 국채 10년	168.9	-3.3	+10.2
일본	1.07	+2.9	+1.8	미-일 국채 10년	333.0	-2.5	+17.4
독일	2.25	-1.0	+12.6	프-독 국채 10년	79.7	+1.4	+3.9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 주: 컨테이너 운임(주간)은 1M, 3M 대비 등락폭 기준. 괄호 안은 기준 날짜.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